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 8.570131-32 **헨델: 메시아 (1751년 버전)**
옥스퍼드 뉴칼리지 합창단
에드워드 히긴버텀(지휘)
고음악 아카데미
- 8.557755-56 **JS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플루트협주곡 BWV1056 편곡**
앙드레 가베타(지휘)
스위스 바로크 솔로이스츠
- 8.557722 **쇼스타코비치: 첼로소나타, 바이올린소나타**
드미트리 아블론스키(첼로)
막심 페도토프(바이올린)
에카테리나 사란체바,
갈리나 페트로바(피아노)
- 8.557815 **반할: 3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타카코 니시자키(바이올린)
헬무트 뮐러-브뤼헨(지휘)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 8.557669 **크로머: 오페라중주 3번, 오보에 오중주 1, 2번**
낸시 알브로스 킹(오보에)
솔로미아 소로카, 예바 스텐
(바이올린)
조셴 캄비울라
니탈리아 코마(첼로)
- 8.557766 **펜데레츠키: 교향곡 7번 '예루살렘의 일곱 문'**
올가 파시치니(소프라노)
에바 마르시니(메소)
비슬라브 오호만(테너)
로무알드 데사르비츠(베이스)
안토니 비트(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 8.557813 **킬러: 피아노협주곡, 화색안개, 성모, 코시지알레초 1909**
발데마르 말리츠카(피아노)
비슬라브 오호만(바리톤)
안토니 비트(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 8.557843 **로드리고: 아랑헤스 협주곡(하프협주곡 편곡),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세빌리아 환상곡,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세베나**
귀네스 웬팅크(하프)
막시미아노 발데스(지휘)
아스투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8.557804 **스트라빈스키: 시편교향곡, 미사, 칸타타, 바벨, 3개의 러시아 종교합창곡**
마리 안 하트(메조)
토마스 보그단(테너)
로버트 크래프트(지휘)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 8.559240 **코플랜드: 로데오, 레드 포니 모음곡, 집으로부터의 편지, 대조원 자넬**
조안 필레타(지휘)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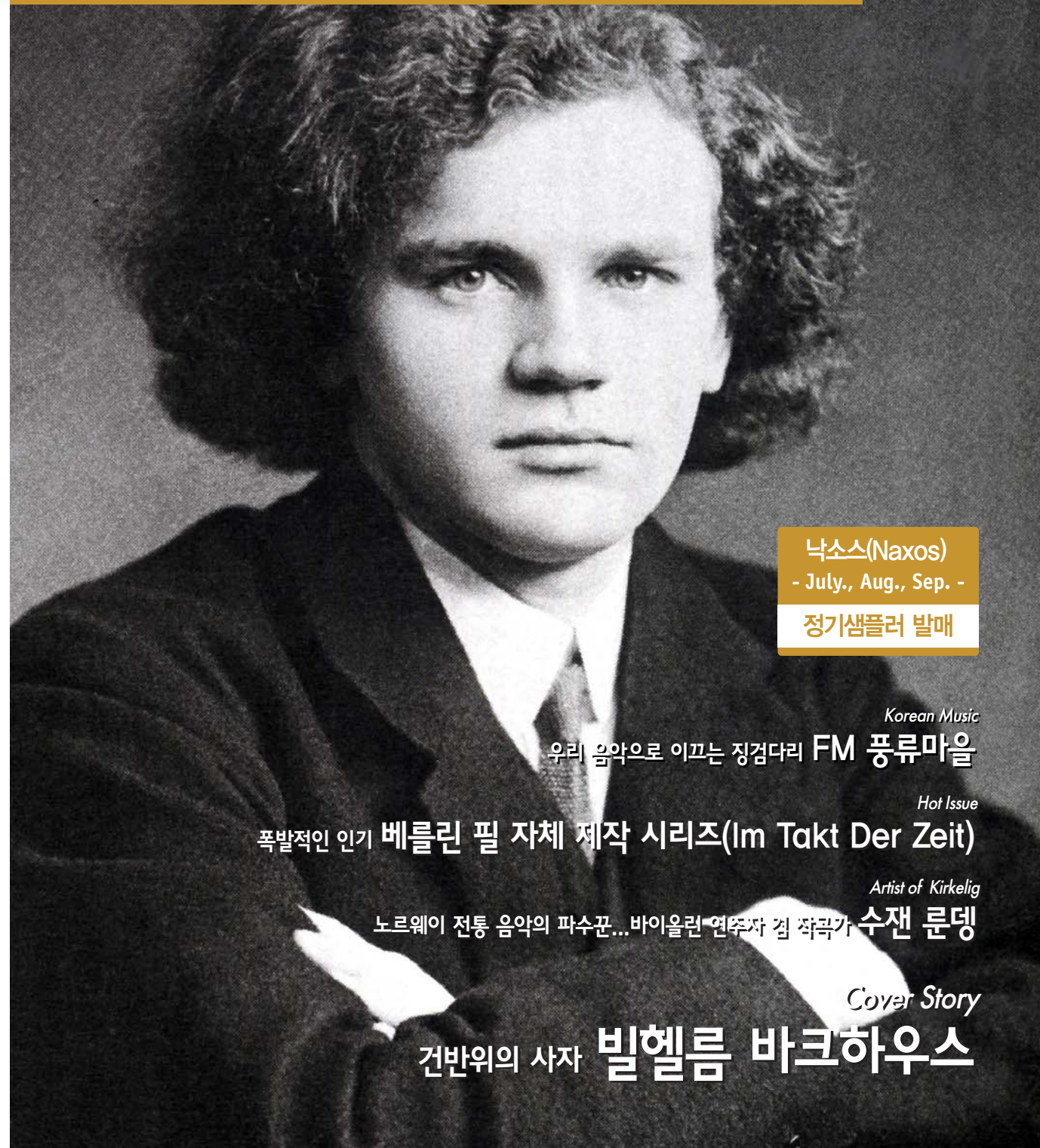
- 8.557898-99 **C. 데이비스: 발레 '알라딘'**
칼 데이비스(지휘)
알레이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8.570183 **스테이바: 킨롱의 아들, 가장 위험한 게임**
윌리엄 스톨버그(지휘)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 8.570243 **관악합주를 위한 기념비적인 작품들**
마이클 J 쿨번(지휘)
미합중국 해병군악대
- 8.559178 **아이브스: 현악사중주 1, 2번, 스케르초**
블레어 현악사중주단
- 8.557709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3대의 기타를 위한 편곡)**
트리오 캄파넬라
- 8.570142 **튜더시대의 오르간 작품들**
칼 스미스(오르간)

- 8.557884 **르 루: 하프시코드 작품집**
나오코 아쿠타가와,
글렌 윌슨(하프시코드)
- 8.557884 **투리나: 세비아 모음곡, 스페인 여인을 시리즈 1, 2, 세비아의 여인들**
조르디 마스(피아노)
- 8.557783 **윌리엄슨: 목소리를 위한 교향곡, 영국의 과거 합창 모음곡, 부족 친구를 위한 레퀴엠**
피터 브로드벤트(지휘)
조아일 컴퍼니 오브 싱어즈
- 8.660161-62 **도니체티: 연대의 말**
마리아 콘스탄차 노첸티니(소프라노)
조르조 카스차리(테너) 외
마르치오 콘티(지휘)
카메리 마루치노 극장
관현악단과 합창단
- 8.552131-32 **The Very Best of LISZT**
- 8.552133-34 **The Very Best of ELGA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November 2006



낙소스(Naxos)
- July., Aug., Sep. -
정기샘플러 발매

Korean Music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 풍류마음

Hot Issue

폭발적인 인기 베를린 필 자체 제작 시리즈(Im Takt Der Zeit)

Artist of Kirkelig

노르웨이 전통 음악의 파수꾼... 바이올린 연주자 겸 작곡가 수잔 룬데그

Cover Story

건반위의 사자 빌헬름 바크하우스

건반 위의 사자, 독일 피아니스트

빌헬름 바크하우스 Wilhelm Backhaus

독일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빌헬름 바크하우스는 1884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다. 20세기의 매우 중요한 피아니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대의 다른 많은 대가 피아니스트들과는 달리,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느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아니었다. 바크하우스는 10세 때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작했다.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1899년까지 알로이스 레켄도르프(Alois Reckendorf)한테 배운 후 만난 선생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독일에 귀화했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이겐 달베르(Eugen d'Albert)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바크하우스는 달베르한테 1898년과 1899년 잠깐 동안의 레슨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국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다. 사실은 연주를 할 수 없게 된 알렉산더 실로티(Alexander Siloti)를 대신해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여행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영국과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고, 바크하우스는 이듬해에 프롬스에까지 데뷔하게 된다. 1905년에는 파리에도 진출해 5천 프랑이나 되는 상금이 걸린 아주 귀중한 안톤 루빈스타인 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그때 나이가 겨우 21세였다. 1912년에는 미국에도 연주여행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그가 활동한 곳은 유럽이었고 1931년에는 마침내 스위스 시민권을 얻게 되어, 그곳에 정착, 연주활동을 폈다. 그는 80대가 되어서도 줄곧 청중 앞에서 왕성한 의욕으로 연주했던 그야말로 노익장의 화신이었다. 1969년 85세 거장 피아니스트 바크하우스, 여전히 기다리는 청중들이 많았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남부 필라흐(Villach)에서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를 가르친 선생들이 이렇다하고 내세울 위대한 피아니스트 전통속의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바크하우스는 위대한 라이프치히 전통 피아니즘을 잇는 최후의 독일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연주 방식은 직선적이고, 중후하며, 권위가 있지만 꾸밈이 없으며, 그가 좋아했던 위대한 작품들의 구조적 장점이나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 특징은 고전 레퍼토리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흔히 위

대한 작곡가들 작품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대변자'로 인식되었는데, 특히 만년에 정열을 쏟은 베토벤 연주에서 그랬다. 그가 열중한 만년의 베토벤 덕분에 그는 흔히 위대한 베토벤 전문 연주자로 먼저 언급된다. 작품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통찰력, 특수하게 작동하는 원숙한 해안으로 그는 베토벤 연주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세운 인물이다. 그가 크게 존경 받는 이유가 되겠지만, 바크하우스는 레퍼토리를 무작정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취미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그가 평생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주했던 작품들은 대개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슈만, 그리그, 쇼팽, 리스트 정도의 명곡들이었다.



바크하우스는 피아노 음악 녹음 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1909년 피아노 협주곡 음악을 세계 최초로 녹음한 인물이 바로 바크하우스였고(당시 그가 연주한 것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축소 버전이었다),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op.10과 op.25 두 세트 전곡 녹음을 최초로 남겼던 사람도 바로 그였다. 하지만 바크하우스의 음악세계에 빠져있는 애호가들에게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은 그가 1950년대 이후에 상당한 양의 녹음을 남겼다는 점이다. 영국 데카 레이블을 통해 남긴 명반들 가운데 먼저 꼽을 것을 말하라면, 단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 소나타 전곡집이다. 협주곡 녹음 가운데 우리 애호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959년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5번, 즉 '황제' 협주곡이다. 악곡 전체를 관통하는 고전적인 피아니즘과 낭만적인 정서의 완벽한 조화, 특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2악장의 진한 호소력이 압권인 황제는 이 명곡에 대한 선입견을 세우는데,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협주곡 녹음으로 이보다 덜 유명하다고 말하면 매우 서운해 할 음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를 뵘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이 레퍼토리의 가장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의 음반으로는 게자 안다의 것(DG)이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즉 중후한 독일적 정서로 높은 경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반이다.

별써 많은 애호가들이 주목하고 수집해왔겠지만, 낙소스에서 발매하고 있는 바크하우스의 음반들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 나온 바크하우스의 낙소스 음반들의 주류는 단연 브람스다. 낙소스는 그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을 아주 오래 된 녹음으로 마련해주고 있다. 1번은 1932년 런던 애비 로드 스튜디오 녹음으로 관현악단은 BBC심포니 오케스

트라, 지휘자는 브람스 음악에 일가견이 있었던 영국 지휘자 에이드리언 보울트다. 독일인으로서서는 드물게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경쾌한 통합능력을 과시했던 젊은 시절 바크하우스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 협주곡 2번은 작센 국립 오케스트라와 카를 뵘이 함께한 1939년 드레스덴 녹음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달 전의 기록인데, 유명한 나중의 녹음이 중후한 연주라면, 이때의 기록은,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지만, 매우 싱그러운 젊음의 정신을 들려준다. 특히 불후의 자장가인 안단테 악장에서 선사하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절묘한 대화와 사랑스런 융화는 비록 오래된 녹음이라 음향에는 그늘진 곳이라도 심연을 울린다.

그러나 낙소스에서 발매한 그의 브람스 음반 중 꼭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스케르초, 오리지널 주제 변주곡, 왈츠, 그리고 후기 소품들이 가득 들어 있는 음반(8.111041)이다. 대부분 1930년대 그가 영국 여행을 할 때 녹음한 것들인데, 강력하고 화려한 기교는, '건반 위의 사자'라는 그의 별명이 베토벤 연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바크하우스의 매력 포인트는 화려한 기교가 전부가 아니다. 이점은 확실히 요즘의 많은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들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그가 들려주는 것은 화려한 기교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악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신성에 대한 남다른 사색이다. 후기 피아노 소품들은 너무도 아름다운데, 특히 Op.119의 1번은 오늘날 누구의 연주라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높은 경지를 들려준다. 모두 정말 오래된 음원들이다. 하지만 마크 오버트-손의 빼어난 실력에 힘입어 매우 또렷한 음향으로 담겼다.

낙소스에 있는 바크하우스의 브람스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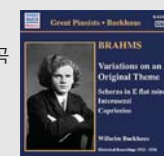
Naxos 8.110699

피아노 협주곡 1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연주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
에이드리언 보울트



Naxos 8.110766

피아노 협주곡 2번
발라드/왈츠/헝가리 무곡
연주 :
작센 국립 오케스트라
지휘 :
카를 뵘



Naxos 8.111041

스케르초 op.4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21
왈츠/후기 피아노 소품들



Naxos New Releases



Naxos 8.570131-32

2 CD SET

헨델: 메시아 (1751년 버전)

헨리 제킨슨, 오타 존스, 로버트 브룩스(보이스소프라노),
이스틴 데이비스(카운터테너), 토비 스펜스(테너), 이몬 더건(베이스),
옥스퍼드 뉴칼리지 합창단, 에드워드 히긴바텀(지휘), 고음악 아카데미

낙소스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헨델의 걸작 오라토리오 '메시아'. 1742년 더블린 초연본을 복원했던 스콜라스 바로크 앙상블과 달리 이번 신본은 남성들만으로 연주에 임했던 1751년 런던공연 버전을 재현하였다. 합창단의 소프라노와 알토파트는 물론, 솔로 아리아들 역시도 보이스소프라노와 카운터테너들이 담당한 이 연주는 유구한 영국 합창음악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의의 또한 지닌다. 소프라노 아리아를 분담한 세명의 보이스소프라노를 필두로 옥스퍼드 뉴 칼리지 합창단이 들려주는 투명한 발성이 아름다우며, 호그우드 음반 이후 오랜만에 메시아의 반주를 맡은 고음악 아카데미의 충실한 관현악반주 역시 충실하다.



Naxos 8.557669

크롬머: 오보에 사중주 3번, 오보에 오중주 1,2번

낸시 암브로스 킹(오보에) / 솔로미아 소로카, 예바 스텐(바이올린) / 조셉 캄(비올라) / 나탈리아 코마(첼로)

프란츠 크롬머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전통에 기초한 전형적인 고전양식의 작품들을 남겼는데, 특히 자국의 훌륭한 관악전통을 살려서 관악기를 위한 양질의 작품들을 여럿 완성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오보에사중주와 두 곡의 오보에오중주는 모두 최근에 재발굴된 것들로, 독주악기의 화려한 초절기교와 더불어 빈 고전파의 전형적인 우아미를 함께 갖춘 작품들이다. 오보에의 매력을 만끽하게 되는 음반.



Naxos 8.557766

2 CD SET

펜데레츠키: 교향곡 7번 '예루살렘의 일곱 문'

올가 파시치낙(소프라노) / 예바 마르시니엑(알토)
비슬라브 오흐만(테너) / 로무알드 테사로비츠(베이스)
보리스 카르멜리(낭송) / 안토니 비트(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974년 첫 방문 이후 예루살렘은 펜데레츠키의 마음속에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던 도시였다. 마침 다비드의 정도 30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이 도시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완성시켰던 것이 바로 1996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초연된 교향곡 7번 '예루살렘의 일곱 문' 이었다. 구약에서 텍스트를 취한 이 작품은 다섯 독창자와 내레이터, 3개의 혼성합창단을 요구하는 대작이다. 폴란드 최고의 솔리스트들과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악단인 바르샤바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 음반이 동곡의 결정반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Naxos 8.557755-56

2 CD SET

JS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플루트협주곡 BWV1056 편곡, 음악의 헌정 중 트리오소나타

앙드레 가베타(지휘) / 스위스 바로크 솔로이스츠

다양한 악기 조합을 위한 여섯 편의 협주곡으로 구성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괴테시대의 바흐를 대표하는 인기곡이다. 여러 참신한 악기조합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바로크시대의 고유한 장르인 합주협주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개량악기를 사용했던 쾰른 체임버의 연주에 이어 낙소스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브란덴부르크협주곡으로, 스위스의 시대악기 앙상블인 스위스 바로크 솔로이스츠가 경쾌하고도 아기자기한 연주를 들려준다. 여백을 채우는 음악의 헌정 중 트리오소나타와 하프시코드협주곡 BWV1056을 플루트협주곡으로 편곡한 버전 역시 알차다.



Naxos 8.555843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하프협주곡 편곡),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세빌라 환상곡,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세레나타

귀네스 웬팅크(하프) / 막시미아노 발데스(지휘) / 아스투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드리고의 관현악작품 시리즈의 아홉 번째 음반. 맹인이라는 핸디캡을 멋지게 극복해내었던 이 의지의 작곡가가 남긴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세 편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작곡가는 1974년 자신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자 방송시그널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랑훼즈협주곡을 기타가 아닌 하프를 위하여 편곡하였는데, 이 음반에서 이 하프 협주곡 버전을 감상할 수 있다. 사랑스러운 선율로 가득한 콘체르토 세레나타와 스페인 음악의 옛 영광을 표현한 세비야나 환상곡 역시 그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작품들.



Naxos 8.557504

스트라빈스키: 시편교향곡, 미사, 칸타타, 바벨, 3개의 러시아 종교합창곡

마리 안 하트(메조) / 토마스 보그단(테너) / 데이비드 윌슨 존스(낭송) / 시몬 졸리 코랄 / 그렉 스미스 싱어즈 / 로버트 크래프트(지휘) /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스트라빈스키의 종교적 신념을 담은 작품인 시편교향곡은 작곡가가 신고전시대에 접어들어 완성한 4편의 교향곡 형식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걸작이다. 미사는 작곡가의 미국생활 초기에 완성된 것으로 중세 찬트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복고풍 작품이며, 9개의 캐논으로 구성된 칸타타 역시 신고전시대를 대표작 중 하나다. 작곡가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의 노련한 해석은 이 작품들의 가장 신뢰할 만한 연주임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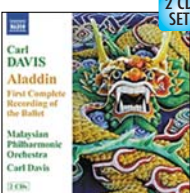


Naxos 8.557813

킬라르: 피아노협주곡, 회색안개, 성모, 코시치엘레츠 1909

발데마르 말리츠키(피아노) / 비슬라브 오흐만(바리톤) / 안토니 비트(지휘) /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폴란드 작곡가 보이치예흐 킬라르는 1960년대의 실험적인 음악들을 거친 뒤 비로소 자국의 전통음악에 기초한 보다 직접적으로 듣는 이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음악들로 창작 노선을 바꾸었다. 피아노협주곡은 이 나라의 뿌리 깊은 가톨릭 신앙을 배경에 둔 작품으로, 흡사 구레츠키를 연상케 하는 깊은 영적인 감동을 느끼게 한다. '성모'는 옛 폴란드 찬송가에 기초한 합창 환상곡이며, 교향시 '코시치엘레츠 1909'는 그 해에 폴란드 남부의 이 산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망했던 선배 작곡가 카를로비츠를 추모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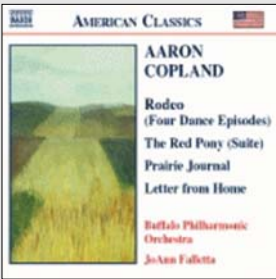


Naxos 8.557898-99

C. 데이비스: 발레 '알라딘'

칼 데이비스(지휘) /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칼 데이비스는 영화 및 방송음악이나 각종 크로스오버 계열에서 활약 중인 작곡가 겸 지휘자다. 특히 폴 매카트니와 공동 작곡했던 리버풀 오라토리오가 유명하다. 천일야화의 친근한 소재를 담은 이 발레는 호두까기 인형의 전통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작곡가의 설명 그대로 귀에 친근하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내한 공연을 통해 충격을 안겨주었던 말레이시아 필하모닉의 뛰어난 기량을 이 음반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Naxos 8.559240

코플랜드:
로데오, 레드 포니 모음곡, 집으로부터의 편지, 대초원 저널

조안 팔레타(지휘) /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장 미국적이 작곡가로 손꼽히는 코플랜드. 그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인 '로데오'를 수록한 음반. 특히 마지막 곡 '호 다운'은 아메리칸 클래식 의 고전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다. '레드 포니' 모음곡은 존 스타인벡의 동명 소설에 기초한 1948년도 영화를 위한 음악들에서 간추린 것으로, 미국 민요를 연상케 하는 소박한 선율들이 정겹다. 마린 알소프와 더불어 지휘대 위의 우먼 파워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조안 팔레타와 그가 이끄는 버팔로 필하모닉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70183

스테이너: 킹콩의 아들, 가장 위험한 게임

윌리엄 스트롬버그(지휘) /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맥스 스테이너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다. 미국으로 건너온 직후 브로드웨이에서 거센과 함께 작업하기도 했고, 1930년대 이후에는 할리우드를 무대로 다수의 영화음악을 남겼다. 특히 '킹콩'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걸작영화들의 음악을 맡으면서 큰 명성을 얻었다. 1933년작인 '킹콩의 아들'은 같은 해 큰 성공을 거두었던 '킹콩'의 속편으로, 전작의 명성에 기댄 졸속작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지만, 스테이너의 음악만큼은 전작에 준하는 충실도를 보여준다.



Naxos 8.570243

관악합주를 위한 기념비적인 작품들

마이클 J 콜번(지휘) / 미합중국 해병군악대

관악밴드를 위한 고급의 히트 레퍼토리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밴드음악의 고전인 베르디의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장엄한 월튼의 대관식행진곡,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미국 각종 학교 밴드들의 단골 레퍼토리인 퍼시체티의 밴드를 위한 교향곡, 바인베르크의 오페라 '백파이프 부는 사람다' 중의 흥겨운 폴카, 민요에서 재즈까지 총망라된 코플랜드의 작품 앨범, 그레인저의 어린이들의 행진곡 등을 미 합중국 해병군악대의 씩씩한 연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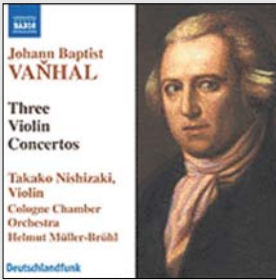


Naxos 8.557722

쇼스타코비치:
첼로소나타, 바이올린소나타, 로망스와 녹턴(첼로와 관현악 편곡)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첼로, 지휘) / 막심 페도토프(바이올린) / 에카테리나 사란체바, 갈리나 페트로바(피아노) /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각각 하나씩 완성하였다. 각 악기들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이 소나타들은 15편의 현악사중주에 버금가는 작곡가의 실내악 장르에서 가장 돋보이는 걸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34년에 완성된 첼로소나타는 작곡가 특유의 냉소적인 스케르초와 러시아적인 감성에 충만한 로망스 악장을 함께 담고 있다. 1968년 오이스트라흐를 위해 완성된 바이올린소나타는 작곡가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강렬한 작품이다. '등에' 중 로망스는 작곡가가 남긴 가장 사랑스럽고 우아한 작품들 중 하나로, 중후한 첼로의 중저음이 돋보이는 편곡이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Naxos 8.557815

반할:
3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타카코 니시자키(바이올린) / 헬무트 뮐러-브뤼(지휘) / 쾰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모차르트는 1777년 10월 반할의 바이올린협주곡 Bb장조의 독주를 맡아서 청중들의 큰 갈채를 이끌어내었다. 이는 18세기 빈의 가장 인기 높았던 작곡가인 반할이 완성한 17곡의 협주곡 중 하나로 이 음반에서 그 인상적인 실체를 만나 볼 수 있다. 다른 두 협주곡들은 1772년 이전에 완성된 것이며, 세 협주곡 모두가 우아한 선율미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고전협주곡의 특징을 공유한다.



Naxos 8.559178

아이브스: 현악사중주 1, 2번, 스케르초

블레어 현악사중주단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의 정서를 자신의 아마추어적인 참신한 기법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했던 찰스 아이브스. 그가 남긴 두 편의 현악사중주는 상이한 특징을 보여준다. 찬송가를 중요한 음악적 소재로 활용한 1번은 작곡가의 초기 특징인 충만한 에너지와 독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소 복잡한 구조의 2번은 표준적인 현악사중주들의 연주가 유약하다고 여겼던 작곡가가 그에 대한 반동심리로 완성한 작품이다. 작곡가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네 사람이 서로 대화하다가 토의하다가 말싸움하다가 싸우다가 악수를 하고 입을 다문 뒤 창공을 바라보기 위해 산비탈을 오른다.'



Naxos 8.557709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3대의 기타를 위한 편곡)

트리오 캄파넬라

고야의 그림과 18세기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상을 담은 태피스트리들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작품 '고예스카스: 사랑에 빠진 마호스'는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만든 위대한 걸작이다. 고예스카스와 또 다른 수록곡인 엘 페렐레(지푸라기 인형)를 3대의 기타를 위한 독특한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이미 알베니스의 이베리아를 기타 삼중주로 녹음했었던 트리오 캄파넬라가 이번 그라나도스의 작품들에서도 스페인의 향토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매혹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Naxos 8.570142

튜더시대의 오르간 작품들

칼 스미스(오르간)

헨리 7, 8세, 메리1세,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졌던 튜더왕조(1485-1603)는 영국역사상 가장 험난한 격동기였으나, 당시의 영국 오르가니스트들은 방대한 양의 레퍼트와를 자랑하였다. 그들의 작품은 당시의 정교한 코랄 작품들을 토대로 만든 것들이었다. 이 음반에는 볼러니 작품집을 비롯한 여러 소스에서 간추린 토마스 탈리스, 토마스 톰킨스, 존 레드포드 등의 당대 거장들의 오르간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884

르 루: 하프시코드 작품집

나오코 아쿠타가와, 글렌 윌슨(하프시코드)

가스파르 르 루는 루이 쿠프랭과 견줄만한 17세기 프랑스의 일급 건반음악 작곡가였다. 일련의 창의성과 정교한 장식, 심원한 표현력은 그가 당대의 거장이었음을 증명한다. 대단히 기교적인 사라방드와 12 쿠플레트(트랙 40)는 분수에 반사되는 달빛과도 같은 거의 인상주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변주곡으로 마무리된다. 프랑스 바로크 건반작품들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던 글렌 윌슨과 그의 제자 나오코 아쿠타가와가 하프시코드의 향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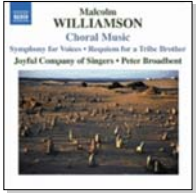


Naxos 8.557684

투리나: 세비아 모음곡, 스페인 여인들 시리즈 1, 2, 세비아의 여인들

조르디 마스(피아노)

호아킨 투리나는 파야, 모푸, 알베니스, 그라나도스와 더불어 스페인 피아노음악 레퍼트와에 큰 기여를 하였던 작곡가다. 이번 신보는 그의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으로 작곡가의 창조영감의 양대 원천이었던 여인과 자신의 고향 세비야를 소재로 만든 작품들을 담았다. 특히 스페인의 여인들 1,2집에 배어나오는 독특한 향취는 그가 20세기의 가장 개성적인 스페인 작곡가의 한사람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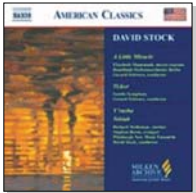
Naxos 8.557783

윌리엄슨:

목소리를 위한 교향곡, 영국의 괴짜 합창 모음곡, 부족 친구를 위한 레퀴엠

피터 브로드벤트(지휘) / 조이풀 컴퍼니 오브 싱어즈

그라모폰 추천음반 “영감어린 아가펠라 작곡기법이 이들 합창작품들에 영감을 주었다” 호주 출신의 말콤 윌리엄슨은 마스터 오브 퀸스 뮤직에 임명된 최초의 비영국인 작곡가이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합창음악들이었다. 이 음반은 대단히 영적인 작품인 목소리를 위한 교향곡에서부터 작곡가의 호주 원주민 친구의 죽음을 기려서 작곡한 레퀴엠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표적인 합창음악들을 엄선하였다.



Naxos 8.559422

스톡: 작은 기적, 이즈코르, 테키아, 이루사

엘리자베스 삼마쉬(메조) / 리처드 스톨츠만(클라리넷) / 스티븐 번즈(트럼펫) / 제러드 슈워츠(지휘)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시애틀 심포니

메조소프라노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톡의 드라마틱 칸타타 ‘작은 기적’은 나치 치하의 유대인 학살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와 아이의 애절한 사연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유대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나머지 두 기악 작품에서는 모리스 앙드레 쿡루르 우승자인 트럼펫터 스티븐 번즈와 세계 정상급의 스타 클라리네티스트 리처드 스톨츠만의 화려한 개인기가 빛을 발한다.



Naxos 8.6601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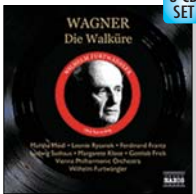
도니제티: 연대의 딸

마리아 콘스탄차 노첸티니(소프라노) / 조르조 카스치아리(테너) 외 / 마르치오 콘티(지휘) / 키에티 마루치노 극장 관현악단과 합창단

연대의 딸은 도니제티가 파리 청중을 위해 작곡한 불어 오페라이다. 그의 오페라 중 가장 사랑스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음악적으로도 도니제티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서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벨칸토 오페라의 고난도 테크닉이 요구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 음반은 2004년 키에티 마루치노 극장에서의 실험을 옮긴 것으로 개정판인 이탈리아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무려 여덟 번의 하이 C가 등장하는 테너 아리아 ‘오늘은 즐거운 날’이나, 2막의 연대시절을 그리워하는 마리아의 아리아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Naxos Historical



Naxos 8.111056-58

바그너: 발퀴레

마르타 뢰들, 레오니 리자베크(소프라노) / 루드비히 주타우스(테너) / 페르디난트 프란츠(바리톤) / 고트홀프 프리크(베이스)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지휘) / 빈 필하모닉

1954년 무직베라인잘에서 녹음된 이 음원은 이 작품 최초의 스튜디오 세션 레코딩이자, 푸르트벵글러 최후의 스튜디오 세션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거장은 이 녹음 뒤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영면에 들었다. 당시 그라모폰은 이 녹음을 두고 ‘가장 빛나는 스타들이 동원된 이 녹음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질을 보여준다. 푸르트벵글러의 영감어린 지휘 아래서 이 오페라는 빛과 열기를 방사한다.’ 라고 평했다.



Naxos 8.111006

델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피아노협주곡 외

장 푸네(바이올린) / 베티 험비 비첨(피아노) / 토마스 비첨(지휘) / 로알 필하모닉

비첨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델리우스 해석가로 남아있으며, 많은 연주를 통해 이 작곡가의 이름을 세계 각지에 알리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1946년에서 1951년 사이의 녹음을 간추린 이 음반에는 작곡가의 두 협주곡을 포함하여 전매특허와도 같은 서정적인 관현악 소품들이 엄선되었다. 특히 피아노협주곡에서는 지휘자의 아내인 베티 험비 비첨이 독주를 맡았다.



The Very Best of...Series 3rd Releases



Naxos 8.552131-32

The Very Best of LISZ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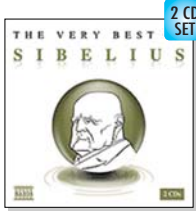
헝가리 랩소디 2번, 사랑의 꿈, 메피스토펠츠, 전주곡, 위로, 프로메테우스, 피아노협주곡 1,2번 발췌, 스페인랩소디, 송어, 파우스트교향곡 마지막 합창, 순례의 해 발췌, 초절기교연습곡 발췌 외



Naxos 8.552133-34

The Very Best of ELGAR

위풍당당행진곡 1,4번, 사랑의 인사, 첼로협주곡 1악장, 피아노오중주, 바이올린소나타, 바이올린협주곡 2악장, 황제행진곡, 교향곡 2번 3악장, 수수께끼변주곡 중 님로드, 교향곡 1번 2악장, 세레나데, 서주와 알레그로, 아베 베를 코르푸스 외



Naxos 8.552135-36

The Very Best of SIBEL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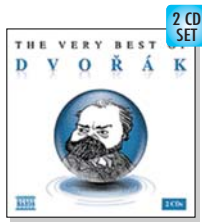
렐리아스와 엘리자베스 중 1막전주곡, 교향곡 2번 4악장, 투오넬라의 백조, 카렐리아모음곡 중 1,3곡, 바이올린협주곡 2악장, 엔 사가, 교향곡 1번 3악장, 로망스, 슬픈 왈츠, 포홀라의 딸, 핀란드어, 안단테 페스티모, 템페스트 중 님프의 춤 외



Naxos 8.552137-38

The Very Best of SATIE

그노시엔느 1,3번, 3개의 침노페디, 머큐리의 모험 중 서곡, 피카딜리, 3개의 사라방드, 널 갖고 싶어, 운동과 유희, 메두사의 뿔, 배 모양의 3개의 소품, 천국의 영웅 문을 위한 전주곡 외



Naxos 8.552139-40

The Very Best of DVORAK

카니발서곡, 유모레스크, 현악사중주 '아메리카' 중 3악장, 교향곡 7,8,9번 발췌,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둠키 중 3악장, 슬라브춤 발췌,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 첼로협주곡 2악장, 로망스, 체코 모음곡 중 폴카, 바이올린소나타 2악장, 루살카 중 달의 노래 외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oli Deo Gloria(SDG)



SDG 124

JS 바흐 – 칸타타 7집

John E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CD1] 삼위일체일(Trinity) 이후 14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17 Wer Dank opfert, der preiset mich/ 감사하는 자, 나를 찬양하도다
BWV25 Es ist nichts Gesundes an meinem Leibe/ 내 몸 편치 못하도다
BWV78 Jesu, der du meine Seele/ 예수, 내 영혼을 가져간 주님이여

Malin Hartelius(sop) / Robin Tyson(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2000년 9월 24일 Abbaye d'Ambronay recordings

[CD2] 성 미카엘 축일을 위한 칸타타

BWV19 Es erhub sich ein Streit/ 저 맹렬한 싸움을 보라
BWV50 Nun ist das Heil und die Kraft/ 이제 구원과 힘이 오도다
BWV130 Herr Gott, dich loben alle wir/ 주 하나님이지여, 우리 모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BWV149 Man singet mit Freuden vom Sieg/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Malin Hartelius(sop) / Richard Wyn Roberts(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2000년 9월 29일 Bremen Unser Lieben Frauen recordings

CD1의 3 칸타타들은 모두 당일에 강독되는 복음서 중의 예수가 10 나병환자를 치료한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BWV78의 전곡을 통해 유지되는 백열의 영감을 포함하여 그의 대한 대담무쌍한 음악적 시도들을 이 작품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상쾌하고도 유려한 개시 코랄 푸가와 연이어지는 아리아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정교하면서도 신랄한 마지막 코랄은 BWV17의 하이라이트이다. 감탄을 자아내는 BWV50을 위시한 성 미카엘 축일을 위한 4편의 칸타타들은 대단히 뛰어난 악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BWV130에서 하느님은 믿는 이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창조하셨음에 대해 찬양받으며, BWV19에서는 성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들과 사탄이 맞서는 계시록의 한 순간을 표현하는 바흐의 금관 활용법이 인상적이다.



SDG 127

JS 바흐 – 칸타타 15집 크리스마스 제 3일을 위한 칸타타

John Eliot Gardiner/ Monteverdi Choir/ English Baroque Soloists

BWV57 Selig ist der Mann/ 시련을 견디는 자는 행복하도다
BWV133 Ich freue mich in dir/ 내가 당신 안에 있으므로 기쁘나이다
BWV151 Su ßer Trost, mein Jesus kommt/ 부드러운 위로가 되시는, 나의 예수가 오셨도다
BWV64 Sehet, welch eine Liebe/ 보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Gillian Keith, Katharine Fuge, Joanne Lunn(sop) / Robin Tyson, William Towers(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2000년 12월 27일 New York St Bartholomew's recordings

BWV151은 가장 친근한 바흐 칸타타의 하나다. 매혹적으로 아름다우며 마음에 위안을 주는 첫 소프라노 아리아는 글룩이나 브람스를 예견하는 듯하다. BWV57은 오페라를 한 편도 쓰지 않았으나, 몬테베르디 이후 가장 뛰어난 극적인 음악 작곡가였던 바흐의 또 다른 일면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활기찬 리듬감이 돋보이는 BWV133의 도입합창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풍성하게 담아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SDG 701

Pilgrimage to Santiago (산티아고로의 순례여행)

Victoria: Mass & Motet 'O Quam Gloriosum'
Morales, Palestrina, Dufay, Mouton, Lassus 등의 Motet
Codex Calixtinus(12세기)의 작품들.

John Elliot Gardiner/ Monteverdi Choir 2005년 5월 녹음

2004년, 자신들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가디너가 이끄는 몬테베르디 합창단은 프랑스를 거쳐 북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옛 순례의 길에 자리 잡은 여러 성당들에서 공연을 가지면서 음악순례여행을 실시하였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16~7세기 이베리아 반도의 폴리포니 종교합창곡들이었으며, 이 지역 작곡가의 작품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널리 불렸던 작품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 음반은 순례여행에서 돌아와 런던에서 완성한 두 음반들 중 두 번째 음반으로(첫 음반은 유니버설에서 발매되었다.)르네상스 폴리포니 미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미를 자랑하는 빅토리아의 걸작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O Quam Gloriosum)를 필두로 여러 폴리포니 거장들의 걸작 모테트들을 수록하였다.

Also Available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음반



SDG 101



SDG 104



SDG 107

2005년 12월
그라모폰 이 달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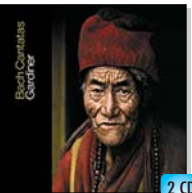
SDG 110



SDG 113



SDG 114



SDG 115



SDG 118



SDG 121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Naxos 8.226003

코펠: 피아노사중주,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9개의 변주곡, 피아노중주

크리스티나 보르코(피아노) / 코펜하겐 클래식

헤르만 D 코펠(1908-98)은 20세기 덴마크 음악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다. 작곡가로서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음악교육자로서도 이 나라 음악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고, 그의 두 아들 안데르스와 토마스 역시도 이 나라의 일급 현존 작곡가들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실내악 작품들은 정통적인 포맷 속에 보수적인 조성체계와 모던한 창조력을 적절히 조화시켰던 이 작곡가의 장점을 또렷이 드러낸다.



www.lpo.co.uk

LPO



LPO 0018

어린이들을 위한 3편의 음악동화들
늑대와 빨간 망토 (음악: 폴 패터슨), 3마리 아기돼지(음악: 폴 패터슨)
눈사람(음악: 하워드 블레이크)

크리스 자비스(낭송) / 샘 올리브(보이스프라노) / 데이비드 패리(지휘)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어린이들을 위한 3편의 친근한 동화가 두 작곡가의 세련된 음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다. 늑대와 맞서는 빨간 망토, 그리고 세 마리 아기돼지, 하늘을 나는 눈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영국의 인기성우 크리스 자비스의 뛰어난 목소리 연기와 함께 펼쳐진다. 특히 하워드 블레이크의 눈사람 중에 삽입되어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히트송 "Walking in the Air"를 보이스프라노 샘 올리브의 청아한 목소리로 담았다. 음악감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어 리스닝용으로도 대단히 유용한 음반.



www.proprius.com

Proprius



Proprius PRSACD02
Hybrid-SACD

EUROPE'S FINEST (예테보리 심포니가 연주하는 관현악 걸작선)
알프벤: 축전서곡, 베버: 무도회의 권유(바인가르트너 편곡),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서곡,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엘가: 사랑의 인사, 바흐: 내 주는 강한 성이오니,
림스키 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스, 라벨: 볼레로

마리오 벤자고(지휘) /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연지향적인 뛰어난 음향으로 오디오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프리우스에서 자신 있게 준비한 최고의 클래식 오디오파일 음반. 네메 예르비와 함께했던 수많은 명반들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스칸디나비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예테보리 심포니가 현 상임지휘자 마리오 벤자고와 함께 녹음한 고급의 관현악 애청곡들을 4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SACD에 담았습니다. 일반적인 베를리오즈 편곡이 아닌 독특한 바인가르트너 편곡으로 접하는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스웨덴 대표 작곡가 알프벤의 화려한 축전서곡, 음험한 악마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인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각종 뱀소리라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친숙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루터의 찬송가에 기초한 바흐의 내 주는 강한 성이오니,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향들의 개성을 비교하기에 제격인 작품인 라벨의 볼레로 등등 예테보리 심포니의 화려한 합주력과 프로프리우스의 고해상도 녹음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음반입니다.

"이 음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음반들 중 가장 현실감 있는 레코딩을 담고 있다." www.sa-c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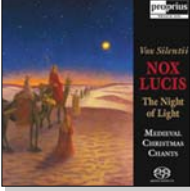


Proprius PRSACD2035
Hybrid-SACD

Julens Ljus (The Light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빛) Hybrid-SACD

스톡홀름 학생 남성합창단 (Stockholms Studentansare) / 카린 올드그렌(지휘)

세계적인 베스트 & 스테디 셀러 '칸타테 도미네'에 이어서 프로프리우스가 내놓은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주목할 만한 캐럴 음반. 1905년 창립된 스웨덴 학생 남성합창단은 합창 강국 스웨덴에서도 오랜 역사와 우수한 앙상블로 큰 명성을 누리고 있는 단체이며, 1990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아베 마리아, 세 동방박사, 세 마리의 양을 보았네, 마리아의 자장가, 보아라 용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애청곡들을 담은 이 음반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장식해줄 것이다.



Proprius PRSACD2038
Hybrid-SACD

Nox Lucis (The Night of Light: 빛의 밤)

복스 실렌티(Vox Silentii)가 노래하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중세 찬트들.
두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복스 실렌티는 그간 여러 중세 음악 음반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해왔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찬트 Hodie Christus natus est(오늘 그리스도 나셨네)를 비롯한 중세 크리스마스 성가들로 구성된 이 음반은 너무나 소비적이고 환락적인 행사로 변질되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신비롭고도 경건한 본질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 최선의 악기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음반.



www.naxos.com

Im Takt Der Zeit 시대의 흐름 속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역사를 담은 자체 제작 시리즈 “Im Takt der Zeit” (시대의 흐름 속으로)의 전체 12타이틀을 소개합니다. 1913년 알프레드 헤르츠가 지휘한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에서 2002년 니콜라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한 바흐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13명의 거장과 베를린 필이 함께한 최고의 명연들을 CD에 담았으며, 그 대부분이 최초로 CD로 발매되는 것들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돋보입니다.



BPH 0608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의 첫 만남!!!

말라: 교향곡 6번 '비극적' / 지휘: 사이먼 래틀, 1987년 11월 14-5일 녹음

버밍엄 심포니를 영국 최정상급의 악단으로 끌어올리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사이먼 래틀이 1987년 11월 베를린 필과 첫 만남을 가졌던 역사적인 콘서트 실황. 이 때 연주했던 말라 교향곡 6번의 대성공으로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베를린 필의 초대를 받게되었고, 마침내 아바도의 뒤를 이어서 이 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른다. 기존 EMI를 통해 발매되었던 같은 작품의 음반보다 2년 앞서서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다 빠른 템포와 라이브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열기를 함께 담은 래틀 최고의 말라 연주. 2악장과 3악장의 배치를 맞바꾼 점도 특기사항이다.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온라인 음반 사이트인 일본타워와 HMV 양쪽 모두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몰이 중!!



BPH 0606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 지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1963년 10월 15일 녹음

군들라 야노비치(sop), 지글린데 바그너(alt), 루이지 알바(te), 오토 비너(bar)

성 헤드비히 성당합창단, RIAS 실내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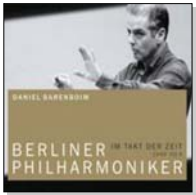
1963년 10월 15일은 2차 대전 중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재건축된 베를린 필의 본거지인 필하모니잘의 재개관기념 콘서트가 열렸던 날이다. 이날 콘서트에서 연주되었던 카라얀의 합창 교향곡은 그동안 모노로 불법 녹취되었던 해적음반이 나돌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스테레오로 녹음된 음원이 최초로 음반화되었다. 당시 카라얀의 총애를 받던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치, 베테랑 알토 지글린데 바그너, 로시니 테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이지 알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베테랑 바리톤 오토 비너의 화려한 독창진이 눈길을 끈다.



BPH 061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하이든: 교향곡 82번 '곰'
지휘: 쿠르트 잔데링, 1997년 6월 9일, 1999년 3월 16일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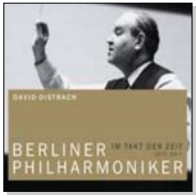
거장 쿠르트 잔데링과 베를린 필의 흔치 않은 만남을 수록한 음반. 거장이 가장 사랑했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인 15번을 수록하였다. 거장은 이 작품을 두 번 레코딩했을 뿐만 아니라 실연에서도 1997년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와의 연주, 1999년 이 음반에 수록된 베를린 필과의 연주, 같은 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역시 베를린 필과 연주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아꼈다. 프라빈스키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그 못지않게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에 정통했던 잔데링의 역량이 노년의 완숙함과 어우러져 감동의 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하이든의 '곰' 교향곡 역시 거장이 즐겨 연주했던 작품. 요즘 접하기 힘든 묵직한 빅밴드 스타일의 연주가 색다른 향취를 불러일으킨다.



BPH 0609

베토벤: 교향곡 7번, 피아노협주곡 1번
지휘&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 1989년 11월 12일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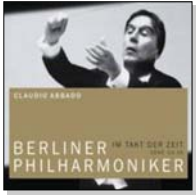
1989년 11월 12일 베를린 장벽 개방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콘서트가 붕괴된 베를린 장벽 앞에서 베를린 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졌었다. 당시 베를린 필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 뜻 깊은 콘서트를 맡았다. 당시의 감동을 뜨거운 음악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는데, 특히 베토벤 교향곡 7번을 타고 흐르는 강렬한 에너지가 일품이다. 과거 소니를 통해 음반화되었던 연주나, 장기간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었기에 이번 재발매가 더욱 반갑다.



BPH 0607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지휘: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1972년 3월 16일 녹음

소련을 대표하던 볼세츨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1969년 베토벤의 삼중협주곡을 협연하면서 베를린 필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년 연속으로 솔리스트로서 이 악단의 초대를 받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지휘자로서 필하모니의 지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실황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지휘자로서도 맹활약했었던 그는 이 음반 외에도 빈 필과 더불어 뛰어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의 실황음반을 남긴 바 있다. 오이스트라흐가 연출하는 러시아 특유의 풍부한 감성이 베를린 필의 정교하고도 호쾌한 연주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BPH 0610

모차르트: 세레나데 K250 '하프너', 행진곡 K249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바이올린: 라이너 쿠스마울 1996년 12월 13-5일 녹음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궁합이 가장 잘 맞았던 시절의 연주 기록. 이 음원은 과거 Deutsche Bank에서 홍보용 CD로 한정 발매됨으로써 현지 애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연주이나, 인터내셔널 정식 발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바도가 베를린 필과 함께한 모차르트 음반은 예상외로 많지 않으며, 본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따로 아바도가 스튜디오 녹음을 남기지 않은 작품들이기에 이 음반의 가치는 더욱 크다. 작품의 풍부한 선율을 마음껏 노래함과 동시에 이치적인 면에 돋보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



BPH 0612

JS 바흐: 관현악모음곡 1, 3번,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60
지휘: 니콜라스 아르농쿠르, 바이올린: 토마스 체헤트마이어, 오보에: 알브레흐트 마이어, 2002년 10월 5일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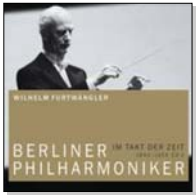
베를린 필과 더불어 브람스나 브루크너와 같은 로맨틱 교향곡들을 꾸준히 녹음해왔던 아르농쿠르가 자신의 교향곡과 같은 작곡가인 JS 바흐의 작품들로 되돌아왔다. 모던 오케스트라의 대명사와 같은 베를린 필에 특유의 절충주의적인 접근법을 접목시킴으로써 대단히 독특한 풍미의 바흐를 만들어내었다.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협주곡에는 아르농쿠르와 좋은 호흡을 보여왔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와 베를린 필의 오보에 수석인 알브레흐트 마이어가 독주자로 참여하였다.



BPH 0605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드뷔시: 유희, 미요: 프랑스 모음곡
지휘: 세르주 첼리비다케, 1948, 50, 51년 녹음 Mono

2차 대전 종전 직후 혼란기의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 직을 잠시 맡았던 첼리비다케. 당시 그가 베를린 필과 함께 남겼던 소수의 녹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셋을 한 음반에 묶었다.



BPH 0604

베토벤: 교향곡 1번, 5번,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2번 모음곡
지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1943, 44, 54년 녹음 Mono

카라얀과 더불어 베를린 필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름인 푸르트벵글러. 이 음반에 수록된 세 음원 모두 이미 여러 형태로 음반화가 되었던 것들이나, 이렇게 뛰어난 복각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 중인 1943년 6월 30일에 녹음된 베토벤 교향곡 5번은 거장이 남긴 수많은 동곡 녹음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고 뜨거운 연주로 정평이 나있던 바로 그 연주. 베토벤 교향곡 1번은 거장과 베를린 필의 마지막 콘서트였던 1954년 9월 19일 공연실황이다. 역시 전시였던 1944년 3월에 녹음되었던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BPH 0603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리스트: 타란텔라, 베버: 프레치오사 서곡, R 슈트라우스: 틸 오이렌슈피겔의 즐거운 장난, 주베: 경기병 서곡
지휘: 에리히 클라이버, 1930-35년 녹음 Mo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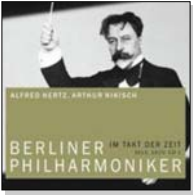
얼마 전 영면한 거장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아버지이자 20세기 전반기 독일/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지휘자의 한 사람이었던 옛 거장 에리히 클라이버. 이 음반은 그가 2차 대전 전에 남겼던 SP 음반들을 복각한 것으로 모두 이번제 최초로 CD로 발매되는 것들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필두로 그가 특히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던 모차르트와 R 슈트라우스의 작품들, 친근한 주베의 경기병 서곡 등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 거장의 고아한 향취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BPH 0602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지휘: 야샤 호렌슈타인, 1928년 녹음 Mono

20세기 중반기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말러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호렌슈타인. 그는 일생동안 브루크너의 교향곡들에도 큰 열정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출생의 유대계 지휘자인 그는 1920년대 푸르트벵글러에게 발탁되어 그의 조수로 활동했고, 1928년 거장의 추천을 통해 뒤셀도르프 오페라의 음악감독에 취임하면서 독일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음반은 바로 그 해에 녹음된 것으로, 레코딩 역사상 두 번째(전기녹음으로는 최초)로 녹음된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이다.



BPH 0601

바그너: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1번,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지휘: 알프레드 헤르츠(바그너), 아르투르 니키쉬, 1913, 1920년 녹음 Mono

세기 전환기의 저명한 바그너 지휘자였던 알프레드 헤르츠는 독일 밖에서 최초로 파르지팔을 지휘했던 지휘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는 지휘자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로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 낭만 오페라들로 각광받던 시절에 녹음한 것으로, 베를린 필의 대표적인 초기 어쿠스틱 녹음들 중 하나다. 한스 폰 뷔로우에 이어 베를린 필을 이끌었던 낭만시대의 명지휘자 아르투르 니키쉬는 운명교향곡을 최초로 녹음했던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음반에는 1920년에 남긴 그의 최만년 녹음들인 리스트와 베를리오즈의 관현악곡들이 수록되었다.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wigmore_live



WHLive 0011

소일레 이소코스키 위그모어 홀 라이브
시벨리우스, R 슈트라우스, 베르그의 가곡들

소일레 이소코스키(sop)/ 마리아 비탈살로(pf)
“성악기량, 이치적인 해석, 작품에 대한 감각이 함께 어우러진 중요한 리사이틀”
1987년 카디프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핀란드 소프라노 이소코스키. 현재 메트, 라 스칼라, 코벤트 가든 등의 일급 오페라극장들을 누비고 있는 최정상급의 오페라 스타인 그는, 가곡 분야에서도 남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온단 레이블에서 출시된 R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는 2002년 그라모폰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본 음반은 2006년 6월 23일 위그모어 홀에서 있었던 가곡 리사이틀을 담은 것으로 자신의 장기인 R 슈트라우스와 시벨리우스의 가곡들을 우아하게 선보이고 있다. R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가곡들인 '내일', '체칠리아'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앙코르로 노래한 섬머타임의 매력 또한 각별하다. Mike Ashman, Gramophone 2006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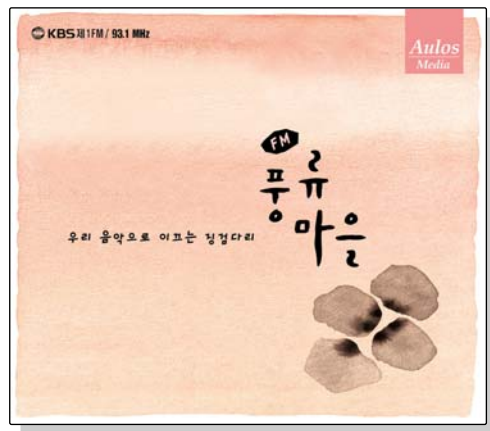
WHLive 0012

드뷔시: 현악사중주 Op.10, 포레: 현악사중주 Op.121
스트라빈스키: 콘체르티노, 이중 캐논, 3개의 소품

이자이 현악사중주단
프랑스의 일급 실내악단이자 위그모어 홀의 단골 초청 연주단체인 이자이 현악사중주단이 자국의 대표적인 현악사중주 두 작품을 연주하였다. 2005년 3월과 2006년 4월에 있었던 두 공연을 하나로 엮은 것으로 스트라빈스키의 흥미진진한 소품들이 간주곡 마냥 자리 잡았다.
“이자이 현악사중주단은 드뷔시의 현악사중주를 직선적이고도 드라마틱하게 연주하였다. 하젠 사중주단이 이 작품을 모더니스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자이는 보다 로맨틱한 시각을 보여준다. 포레의 마지막 고별작품에 대한 감동적인 해석이 더해졌다.” Harriet Smith, Gramophone 2006년 11월호

FM 풍류마을 제작진이 직접 만든 ‘이지 리스닝’ 국악 가이드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 풍류마을



AMC2-072

KBS 제1FM의 인기 국악 프로그램 <FM풍류마을>의 제작진이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시한

회심의 국악 웰빙 음반.

그간 애청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했던 빅 히트 넘버들 가운데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이지 리스닝' 레퍼토리만을 엄선했다. 아주 친절한 해설까지 곁들여 국악이 지루하고 어렵다는 기존 통념을 완전히 깼다. 우리 것이니까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버려라. 진정으로 좋아서 듣고 즐기며 감동 받을 수 있는 국악 레퍼토리들이 여기 다 모였다.

국악, 우리 음악이라고 하면

과거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디만
국악은 분명히 오늘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국악은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모든 음악들과 어울려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기처럼 우리 곁을 맴도는 국악의 생생한 숨소리를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듣고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좀 어려워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만나보니 뜻밖에 다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음악 역시 얼핏 듣기엔 어려워 보일지라도
숨결이 느껴지도록 가까이 마주 앉아 보면
그 다정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만남에 오가는
따뜻한 인사 한 마디, 다정한 눈길, 부드러운 숨결 같은
음악을 모아 우리음악과의 첫 만남으로 이끄는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다릿돌을 하나, 둘 천천히 밟아 건너다 보면
아득해 보이던 강 건너편, 우리 음악의 마을에 어느덧
달아 있을 겁니다.

첫 만남이 씨앗이 되고
씨앗에서 다시 싹이 트고 가지가 쭉쭉 자라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벌써
풍성한 꽃밭을 그리고 있습니다.

FM 풍류마을

* 앨범수록곡

- | | | | |
|----|---|----|---|
| 01 | 마음 속의 풍선 권정구 작곡
소금 : 한충은 ¹ 기타 : 권정구 | 09 | 아름다운 입술 김성민, 권준택 편곡
피리 : 김성민 |
| 02 | 들춤 이준호 작곡
슬기둥 | 10 | 달하 임준희 작곡
양상블 거문 |
| 03 | 이어도 양승환 작곡
중앙컬처밴드 원 | 11 | 아침 김신원 작곡
소금, 대금 : 한충은 ¹ 어쿠스틱 기타 : 함춘호 ¹ 첼로 : 공민선 ¹ 장베이 : 장재효
타악 : 김혜진 ¹ 피아노, 신디사이저 : 김신원 |
| 04 | 산천초목 조영배 편곡
노래 : 강권순 | 12 | 강원도 아리랑 류형선 편곡
인현초등학교 전래동요반 |
| 05 | 여우비 오턴 날 조원행 작곡
25현가야금 : 조문영 | 13 | 산체스의 아이들 이준호 편곡
KBS 국악관현악단 |
| 06 | 조화 최윤상 작곡
wHOOL | | |
| 07 | 천안도 삼거리 정민아 편곡
가야금 병창 : 정민아 | | |
| 08 | 도라지 이원수 편곡
스톤제즈 | | |
- ***Hidden Track

너영나영 조영배 편곡
노래 : 박진아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음악이 좋아졌는데,
어떤 음반부터 들으면 좋을지요.
한 장 추천해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흑자는 음악이 세계공통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음악 역시 아는 만큼 들리기 마련인데,
구중궁궐 속에서 ‘님금’ 한 사람을 위해 연주되었던 음악이나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지게 지고 산에 오르며 불렀던
신세타령을 좋은 음악이니 무작정 들어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가락이 흥겨워질 때
문득 국악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질 때
이 음반으로 시작해보세요~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넌 수 있는 그런 음반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곡을 수록하면 좋을지 오랜 고민 끝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곡과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편한 곡을 모아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다릿돌 하나 둘 디뎌가다보면
 사립문 개 짖는 소리에 지기(知己) 오는 줄 알고
 벽에 걸여놓은 거문고 내려놓을 줄 아는
 멋트러진 풍류객이 되어있으리오만은...

그 뒤에 뉘 알리.
더질더질.

FM 풍류마을 PD 이진희

노르웨이 전통 음악의 파수꾼...바이올린 연주자 겸 작곡가

수잔 룬덴 Susanne Lundeng

수잔 룬덴. 클래식 뮤직의 아티스트가 아니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여성이다. 그것은 물론 그녀의 유명한 음반 “에이트신(Ættesyn)–역사의 풍경” 덕분이다. 실제로 히르켈리히에서는 한국에서 1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정도였으니 우리나라에서 그 음반이 얼마나 성공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음반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만 들으면 온 마음을 다 뺏기게 되는 명곡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Jeg Ser Deg S øte Lam: 야이 세르 다이 쇠트 램)’이란 곡을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결하고 고운 선율에 음계진행도 의외성이 있어 이국적인 애상을 독특하게 전하는 곡이었는데, SBS 주말연속극 “사랑해 사랑해”에서 슬픈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적절히 쓰였고, 그 밖의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송출한 덕분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복구의 노르웨이 음악이 한국 TV연속극에 들어맞다니, 이것이 바로 국경, 인종과 시대를 초월한 음악의 다면적인 능력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이 음악의 인기로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노르웨이의 히르켈리히 레이블이 널리 인식되었고, 오늘날의 인기는 그 한곡이 거의 다 마련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룬덴의 음악은 그녀의 이름만큼이나 신비스럽다.

우리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노르웨이. 대작곡가 그리그와 극작가 이븐센을 탄생시킨 나라, 유럽에서 가장 긴 나라, 3~4월이 지나면 한밤중에도 태양이 환하게 떠있는 백야의 나라, 거대한 빙하가 침식돼 이뤄진 깊은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질푸른 바다, 그 인상적인 해안에 바이킹의 전설을 잠재우고 있는 나라. 지리상의 여건으로 부락을

이뤄 모여 살지 못하고, 피오르드 골짜기 산허리에 뿔뿔이 흩어져 농가를 이루다 보니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 그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굳어진 개인주의는 그들의 정신에 두 가지 경향이 생기게 만들었다. 하나는 강한 자립심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고독감이다. 그녀의 명반 “에이트신”은 이런 경향을 잘 나타내주었다. 타이틀 곡이기도 한 ‘역사의 풍경(Ættesyn:에이트신)’은 험준한 산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용맹성, 혹은 옛 바이킹의 굴할 줄 모르는 기백을 전하는 것 같고, 반면, 즐겁기

만 해야 할 폴카 등의 춤곡들(1곡, 3곡, 4곡, 8곡)은 알 듯 모를 듯 애잔한 감상에 사로잡혀 있고, 두 곡의 결혼행진곡(5곡, 13곡)은 눈물로 범벅된 발걸음 같고, ‘클레트의 결혼’ (6곡)에서는 사방에 아무도 없고, 진절머리 나는 고독만이 꿈틀거리고 있다. 물론 난류의 영향으로 온화한 노르웨이의 기후처럼 따스한 면도 있다. 이국적인 풍경이 진하게 전개되는 ‘자장가(14곡)’에서는 바다 위에 흩날릴 선율로 포근한 잠자리를 펴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당황스럽게

까지 하다. 이어지는 ‘여기 모인 나의 옛 친구들’ (15곡)도 향토색 짙은 우정을 따스하게 보여준다.

룬덴은 아홉 살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노르웨이의 옛 연주자들로부터 연주와 노르웨이 전통 음악에 대해 많은 것을 터득했다. 그런 기반이 있었기에 그녀의 영역은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는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가 되었다. 그녀의 음반들 가운데 2000년에 나온 “Vals til den r øde fela”(그녀의 네 번째 앨범)는 수잔 룬덴이 표현 형식이나 음악적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아주 서정적인 음반이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심각함과 유머러스함, 그리고 슬픔과 기쁨 같은 분위기들을 잘 조화시켜 한 장의 음반을 만들었다. 담긴 모든 음악은 직접 그녀가 썼다.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특별한 표현 형식이 돋보이는 앨범이다. 2004년 앨범 “Forunderlig Ferd”와 2006년에 막 나온

“NATTEVAK”는 노르웨이 전통 민속 음악이다. 그녀의 배경이 노르웨이 전통음악이라는 사실을 이 음반들만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녀는 매우 서정적인 특질을 지닌 아티스트다. 룬덴이 매우 많은 애호가 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거의 모든 음악들이 매혹적인 선율을 기초로 하고 있고 듣기도 쉽기 때문이다.



히르켈리히에서 나온 수잔 룬덴의 명반



FXCD 140

Susanne Lundeng : Drag

이 음반은 94년에 발표한 데뷔앨범으로, 역시 우리 정서와 꼭 맞는 곡들로 가득하다. <Brurmarsj, Fra L ødingen (브루르마르시 프라 러딩겐: 러딩겐의 웨딩마치)>는 강력 추천곡!!!



FXCD 178

Susanne Lundeng : Ættesyn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수사네 룬덴의 최고의 앨범! 현재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은 절판된 상태이며, 수입음반으로만 들을 수 있다. 가슴 저미도록 슬픈 연주곡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FXCD 226

Susanne Lundeng : Vals til den r øde fela

수사네 룬덴의 최신작. 그동안 선보였던 앨범들보다 클래식 음악요소를 더 많이 가미했다. *#3(‘Vals til den r øde fela’)는 강력 추천곡.



FXCD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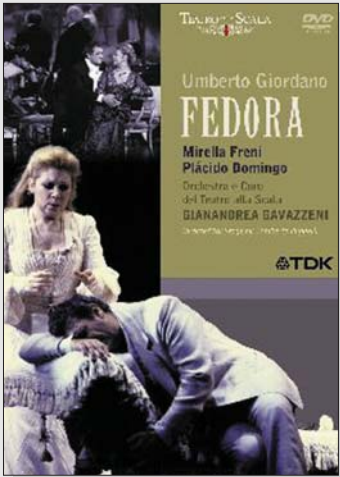
Susanne Lundeng : Forunderlig Ferd

노르웨이에서도 한국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자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수사네 룬덴의 4번째 2004년 새앨범. 포크 음악계에서 가장 흥미있고 혁신적인 음악인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느낌, 그녀의 특별한 음악을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테크닉으로 혼합하는 아마도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현대 포크 음악가이고 작곡가이다. 바이올린 연주뿐 아니라 그녀의 보컬이 앨범에 담겨 있으며 이번 앨범의 총 제작을 그녀가 직접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 이어 또 하나의 히트작.

*추천곡 : #3(슬픈연주), #4(밝음..폴카스타일), #10(잔잔한 바이올린 연주)

TDK
mediactive
www.tdk-music.com

TDK DVD



TDK DVWW-OPFED

조르다노: 오페라 <페도라>

미렐라 프레니와 대지휘자 자난드레아 가바체니의 기념비적 공연 <페도라>는 <안드레아 세니에>를 작곡한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또 하나의 걸작 오페라다. 줄거리는 다소 특이하다. 러시아 귀족 여인 페도라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살인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증은 있다. 역시 러시아 귀족인 로리스인데, 페도라는 그의 사랑을 이용해 자백을 받고 이를 고발하지만, 살인 배경이 자신의 약혼자와 로리스의 아내의 간통에 있었음을 알자 로리스를 용서하고 진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고발 탓에 로리스의 형과 모친이 죽게 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로리스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는 전성기가 한참 지난 나이에도 그 기품을 잃지 않은 위대한 가수인데 특히 <페도라>와 <예프게니 오네긴>가 만년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였다. 본 영상물은 1993년, 58세의 나이에 라 스칼라에서 공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황이다. 특히 라 스칼라의 전설적 지휘자인 자난드레아 가바체니가 무려 84세의 나이로 지휘대에 올라 주술적인 연주를 펼치고 있다. 상대역 로리스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다.

[보충 자료]

○ <페도라>는 베리즈모 오페라의 전성기에 작곡된 작품이며 워낙 많은 걸작들이 쏟아진 시기라 상대적인 인기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토스카>,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안드레아 세니에>를 좋아하는 오페라 팬이라면 반드시 감동을 받을만한 오페라이다.

○ 미렐라 프레니는 1935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태어났으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는 동갑내기의 고향 친구이기도 하다. 노래뿐 아니라 수더분한 인간미 덕분에 오페라 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으며, 데뷔 초기에는 작은 성량의 리릭 소프라노였으나 대지휘자 카라얀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레퍼토리도 넓히고 성량도 키우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도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주력했는데 그중 가장 성공한 것이 조르다노의 <페도라>이다. 프레니 덕분에 이 오페라가 새로운 중흥을 맞았다고 할 정도이다.

○ 자난드레아 가바체니(1909~1996)는 1948년 라 스칼라에서 처음 지휘한 이래 30년간이나 이 위대한 무대를 주름잡았다. 특히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 베리즈모 오페라에 특출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가바체니는 저널리스트로도, 작곡가로도 인정을 받았으며 거의 이탈리아에서만 활약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라 스칼라에서는 거의 신격화된 지휘자였다. 1996년 87세로 서거하자 라 스칼라 극장에서 장례를 주관했다.

Umberto Giordano *Fedora*



TDK DVWW-OPROKA

R. 슈트라우스: 오페라 <장미의 기사>

200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최대 화제작, 로버트 카슨의 <장미의 기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차르트 전용 페스티벌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모차르트와 함께 빈을 상징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은 이곳에서 빈번하게 공연된다. 본 영상물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장미의 기사>의 2004년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 실황으로, 현재 세계 오페라 연출계의 거물인 캐나다의 로버트 카슨이 연출을 맡아 엄청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카슨은 원작의 무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통치하는 18세기 중반을 오페라가 작곡될 당시인 20세기 초반으로 바꿔버렸다.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데카당스한 분위기가랄로 슈트라우스와 대본가 호프만슈탈이 진정 그려내고자 했던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카슨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도 여기에 맞게 꼼꼼하게 수정하여 지금까지의 <장미의 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냈다. 캐나다의 아드리안느 피촌카(마샬린), 오스트리아의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옥타비안), 스웨덴의 미아 페르손(소피), 독일의 프란츠 하울라타(옥스 남작)와 프란츠 그룬트헤버(파니날) 등 환상적인 출연진, 복잡한 악보로부터 투명한 음색과 오케스트레이션의 묘미를 이끌어냈다는 극찬을 받은 시미온 비쉬코프의 지휘, 슈트라우스 연주의 본산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탁월한 연주를 펼쳐냈다.

[보충 자료]

○ 매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여러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지만 그중 최고의 각광은 아무래도 한편으로 치우치게 된다. 2004년의 경우 로버트 카슨 연출의 <장미의 기사>가 그랬다. 카슨은 유럽 오페라계에 혜성 같이 나타난 이래 작품의 과감한 재해석과 의표를 찌르는 무대 구성으로 격찬을 받아왔다. <장미의 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오페라 극장의 하나인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의 긴 무대를 심본 활용하여 무대 중앙에 극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주변을 잘 활용하여 전반적인 상황 묘사에 활용했다.

○ 백작부인 마샬린을 부른 아드리안느 피촌카는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의 대형 소프라노다.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를 위시하여 빈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가수인데 2006년 초에 첫 독집음반(오르페오)을 발매하면서 국제적인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 옥타비안은 아주 젊은 미소년 역으로 메조소프라노가 부른다. 이 역은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가 노래한다. 원래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바지(남장) 역할을 맡자 누구나 만족할만한 옥타비안으로 변신했다.



TDK DVWW-OPRIGL

베르디: 리골레토

그레엄 빅의 연출과 세 주역가수가 빼어난 조화를 이룬 최신 리골레토

어린 두 자식을 일지감지 않은 베르디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애뜻한 사랑을 다룬 작품을 많이 작곡했다. 모두 하나같이 명곡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리골레토>만큼 대중적 인기를 획득한 오페라는 없다.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이 작품은 그만큼 선율미가 뛰어나고 이탈리아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방식으로 극을 이끌어 나간다. 2004년 12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 실황인 본 영상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테너' 라 볼리는 마르셀로 알바레즈, 스페인이 자랑하는 바리톤 카를로스 알바레즈,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질다'로 떠오른 인바 몰라가 출연하여 더 이상 바라기 힘든 수준의 뛰어난 노래와 연기를 펼친다. 또한 손대는 작품마다 찬사를 물고 다니는 연출가 그레엄 빅은 리골레토의 캐릭터를 더한층 부각시킨 동시에 특유의 현대적인 관점이 드러난 무대장치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의상과 연기는 전통과 맞닿아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극적 진행을 물 흐르듯 끌고 나갔다. 마지막 씬의 인상적인 설정과 눈물범벅 연기는 엄청난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보충 자료]

○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그레엄 빅은 자신이 직접 창단한 영국의 버밍엄 오페라의 예술감독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극장으로부터 끊임없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는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감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난해하지 않고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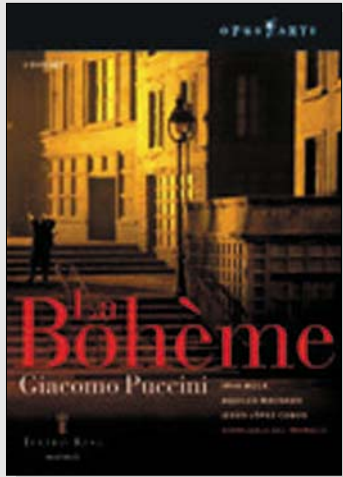
○ 리골레토를 부르는 카를로스 알바레즈는 1966년 스페인 태생이며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음악원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성악을 공부했다. 특히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자주 초청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베르디 바리톤의 한사람이다.

○ 아르헨티나의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는 도니체티, 벨리니, 베르디 초기작을 잘 부르는 이른바 벨칸토 테너로 명성을 얻었다. 현재는 레퍼토리를 크게 확장하여 감성 표현에도 능한 가수라는 평을 듣지만 역시 그 본령은 벨칸토 오페라에 있음을 본 공연을 통해 재차 입증했다.

○ 인바 몰라는 알바니아 태생의 소프라노다. 오랫동안 무명이었지만 영화 '제5원소'의 노래를 맡으면서 약간의 지명도를 획득했고 불과 수년 전에야 베로나 페스티벌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미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청순한 미성으로 이제는 최고의 리릭 소프라노로 인정받게 되었다.

BBC OPUS ARTE
www.opusarte.com

BBC / Opus Arte DVD



BBC/Opus Arte OA 0961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가장 돋보이는 라보엠을 연출하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연출가 잔카를로 델 모나코는 20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이다. 화가로도 소질이 있었던 부친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프랑코 제피렐리를 잇는 정교한 무대 세트와 사실적인 연출로 명성을 얻었다. 델 모나코는 푸치니가 영화적인 감각을 지닌 작곡가라는 관점에서 연출을 시도했다. 무대는 지독할 정도로 사실적이며, 아름답고 감동적인 정경으로 알려진 3막조차도 한편으론 술집 밖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상황까지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2006년 3월의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의 최신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 연출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신선한 출연진이다. 아킬레스 마차도(로돌포)와 인바 물라(미미)는 베로나 야외극장 실황인 <리골레토> 실황 영상물(TDK)로 깊은 인상을 준 바 있는데 이번에는 푸치니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섬세한 가창력과 연기력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가장 매력적인 무제타를 연기한 젊은 소프라노 라우라 조르다노,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마르첼로를 부른 바리톤 파비오 마리아 카피타누치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색다른 것이다. 거장 헤수스 로페즈-코보즈의 지휘 역시 더없이 감성적이다.

[보충 자료]

○ 잔카를로 델 모나코는 현재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 보수적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현대적 연출이 득세하면서 한때 그 위상이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최근에 다시 많은 프로덕션을 맡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종종 무대 세트와 의상까지 도맡곤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스코트에게 세트와 의상을 맡기고 <라보엠>에 영화적인 감각을 불어넣는데 전념하고 있다.

○ 로돌포를 노래하는 아킬레스 마차도는 베네주엘라 출신이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성기에 돌입하는 기대주이다. 작은 키와 결코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외모가 핸디캡이지만 청아하고 순수한 미성만음은 흠잡을 데 없다.

○ 소프라노 인바 물라는 질다 역으로는 이미 국제적 성가를 얻고 있지만 이토록 완벽한 미미를 불러냄으로써 세계 최정상급의 리릭 소프라노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미 한껏 원숙기에 접어든 가수이며 노래는 물론 연약한 여인 역을 소화하는 연기력까지도 완벽에 가깝다.

○ 무제타를 부른 라우라 조르다노는 1979년에 태어난 신예 소프라노이다. 젊지만 이미 바로크 오페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으며 앞으로의 국제적 도약이 확실시되는 유망주이다.

Faveo Series



BBC/Opus Arte
OAF 4016D

키리 테 카나와 호주 공연

호주 남부의 오지에서 벌어진 키리 테 카나와의 특별한 리사이틀

뉴질랜드 마오리 혈통을 지닌 키리 테 카나와는 '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특히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소프라노이다. 귀족적인 기품이 넘치면서도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난 가수인데, 조국인 뉴질랜드는 물론 그 인접국인 호주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다. 본 공연은 1997년 9월 호주 남부의 오지인 알카리나 골짜기에서 펼쳐진 특별한 실황이다. 키리는 이곳까지 기차를 타고 관람 온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널리 알려진 명곡들을 최선을 다해 부르고 있다. 1부 오페라 아리아, 2부 뮤지컬 스탠더드의 구성이며 중간에 민속합창단과 함께 이 지역 민요인 '워리우타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어떤 갠 날',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의 유명 아리아는 물론 뮤지컬 '캐즈', '콜 미 마담', '포기와 베스'의 친근한 노래들이 실려 있다.



BBC/Opus Arte
OAF 4019D

들리브: 발레 <코펠리아>

예쁜 인형에 넋이 나간 애인을 되찾는 유쾌한 명작 발레

<코펠리아>는 낭만주의 초창기에 활동한 독일의 신비스런 문호 E.T.A 호프만의 작품을 발레로 만든 것이다. 비슷한 얘기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의 제1막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스와닐다는 그녀의 애인 프란츠가 기인 발명가 코펠리우스 박사의 발코니에 앉아있는 어여쁜 소녀에게 반해 있음을 알고 속이 상한다. 박사가 외출 나간 틈을 타서 박사의 집에 잠입한 스와닐다는 그 예쁜 소녀가 인형임을 알고 놀라지만, 마침 돌아온 박사에게 들켜지 않으려고 자신이 인형 행세를 하게 되는데... 들리브가 작곡한 선율들이 귀에 착착 감길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유명하며, 아르투르 생 레옹의 첫 안무 이래 여러 안무가들이 개정판을 만든 바 있다. 1990년 호주 국립 발레단의 실황인 본 영상물은 이 발레단의 간판스타이자 부부 커플인 리자 파반느와 그레그 호스만이 서유럽의 일급 발레단을 능가하는 뛰어난 춤을 선사하고 있다.

다니엘라 데시, 오늘날 이보다 훌륭한 토스카는 불가능하다!

토스카 Puccini: Tosca

토스카는 대개의 오페라 여주인공과 달리 청순가련형이 아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며 연인 카바라도시와의 열정적인 사랑을 스스로 주도하는 성숙한 여인이다. 그렇기에 갑자기 맞닥뜨린 비극적 상황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자 한다. 이런 캐릭터는 최고의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아니고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다니엘라 데시는 아름다운 자태와 풍요로운 음성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현역 소프라노로 자리잡았거니와 이제는 연륜까지 더해져서 칼라스의 전설에 견줄만한 토스카를 연기한다. 상대역 카바라도시로는 데시의 실제 남편이자 청아한 음성의 테너 파비오 아르밀리아토가 나섰으며, 역시 이탈리아 오페라의 국보급 베이스 루제로 라이몬디가 악역 스카르피아를 노래한다.

2004년 1월 스페인의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 최신 실황이며 여류 연출가 누리아 에스페르트가 라 스칼라의 무대 미술가 에치오 프리제리오와 협력하여 음침한 가운데 예술성과 현대성까지 가미된 독특한 무대를 창조했다.

[보조자료]

○ 영상물이 가장 풍부하게 발매되어 있는 오페라가 아마도 <토스카>일 것이다. DVD도 이미 8종 이상 발매되었으며 여기에 LD와 비디오로만 출시된 것을 합치면 10여종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내에 라이선스 혹은 수입으로 발매된 DVD만도 이미 4종이나 있는데 여기에 다니엘라 데시의 <토스카>가 더해진 것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완벽하게 토스카로 체화한 데시의 노래와 연기

를 보고 있노라면 전설적인 마리아 칼라스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대단하다. 최근의 영상물로 큰 호평을 받았던 안젤라 게오르규, 마리아 굴레기나의 <토스카>와 비교해도 이 DVD의 다니엘라 데시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낼만하다.

○ 이 영상물은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과 함께 스페인의 양대 가극장으로 꼽히는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실황이다. 그러나 세 주역 가수는 물론 지휘자 마우리치오 베니니까지 이태리에서 불러왔고, 무대 세트와 의상을 담당한 에치오 프리제리오와 프랑카 스카르치아피노 또한 라 스칼라와 파리 오페라에서 잔뼈가 굵은 세계적인 베테랑이다. 연출은 명배우 출신의 누리아 엑스퍼트! 그녀는 12세부터 무대에 서서 약관 20세에 자신의 극단을 창단하여 세계적인 성가를 누렸으며 1986

년부터는 연극과 오페라 연출에 주력하고 있다. 연극인 출신답게 오페라 주인공의 성격과 심리를 치밀하게 분석해내는 타입이다. 이런 환상적인 멤버가 모임으로써 세계 어느 오페라 극장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급 무대가 탄생했다.

○ 엑스트라 피쳐로 다니엘라 데시와 파비오 아르밀리아토 부부, 루제로 라이몬디, 지휘자 마우리치오 베니니, 연출자 누리아 에스페르트의 인터뷰가 제공된다.

TEATRO DELL' OPERA DI ROMA TOSCA 로마극장 오페라 「토스카」 The Original TOSCA

11월 9일
오페라 토스카는 우리를
1900년 로마극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 공연 안내 -

2006년 11월 9일(목) ~ 11월 13일(월요일)
세종문화회관대극장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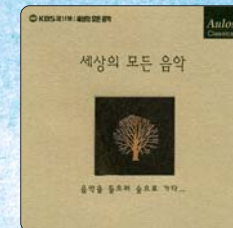


KBS 제1FM / 93.1 MHz

Aulos
Classics

경이로운 판매량, 초 인기 월드 뮤직 베스트 음반!!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1, 2, 3집



AMC2-014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악을 들으며 숲으로 가다.



AMC2-047

세상의 모든 음악 2집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PM 6:00...〈썸〉



AMC2-062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저녁, 길모퉁이 카페...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스텝진과
아울로스 미디어가 엄선한 주옥같은 서정시.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제공한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저녁 여섯시를 맞이하는 청취자들에게...
저녁여섯시의 소유주를 선물한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하기를...



표지사진 :
빌헬름 바크하우스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11월호
통권 제 17호 발행 : 2006년 10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